

“토트넘, 필사적으로 손흥민을 잡으려 할 것”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팀의 '간판 스타'이자 캡틴인 손흥민과 재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스포츠투드'에 따르면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이날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원한다"며 "올 여름 계약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 여름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영국에서 9번째 시즌을 소화 중이다.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 6월 만료된다. 토트넘 생활에 만족하는 만큼 구단과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이적료 없이 팀을 떠날 수 있어 토트넘은 그 전에 손흥민과 재계약을 서두를 전망이다.



▲ 손흥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손흥민은 팀 내 최고 수준인 약 3억원 가량의 주급을 받고 있다. 재계약에 성공하면 이보다 더 나은 조건에 사인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해결사로 맹활약 중이다. 올 초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차출 공

백에도 리그에서만 13골(6골)로 득점 랭킹 공동 6위에 올라와 있다.

기브미스포츠는 "손흥민의 활약은 토트넘에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며 "연장 협상은 필수적이다. 토트넘은 필사적으로 손흥민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날두, 이르면 내년 은퇴할 것”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연합뉴스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의 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9·알나스르)의 은퇴 시기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

5일 '스포츠투드'에 따르면 카타르 스포츠채널 '비인 스포츠'는 전날 "호날두의 연인인 로드리게스가 호날두의 은퇴시기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로드리게스는 "호날두는 1년 더 뛰면 선수 생활을 끝낼 것이다. 길어도 2년 후에는 은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85년생인 호날두는 현재 39세다. 불혹의 나이인 선수가 공격수로서 현역 생활을 이어가는 건 쉽지 않다. 현 소속팀과의 계약도 내년 여름까지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40세가 되는 내년, 은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날두는 리오넬 메시(37·인터마이애미)와 세계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다. 2002년 포르투갈 스포르팅에서 프로에 데뷔한 후 2003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었다.

맨유에서 리그 우승은 물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우승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도 5회 수상해 메시(8회 수상)와 투톱을 형성하고 있다.

호날두는 2009년 이후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이탈리아)를 거쳐 2021 맨유로 전격 복귀했지만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2023년부터 현 소속팀인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로 이적했다. 이번 시즌 29경기에 출전해 28골 1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능장 플레이로 24만 달러 날린 골프 선수

LIV 골프 소속의 한 선수가 능장 플레이로 24만 달러가 넘는 돈을 날렸다.

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아드리안 메론크(폴란드)는 전날 끝난 LIV 골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능장 플레이에 따른 벌타를 받았다. LIV 골프 경기위원회는 메론크가 40초 이내에 샷을 해야 한다는 플레이 속도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버디였던 18번 홀(파5) 스코어에 1벌타를 매겨 파로 변경했다. 메론크는 18번 홀 두 번째 샷을 할 때 무려 2분 이상을 썼다.



▲ 아드리안 메론크. 사진=AFPBBNews

메론크의 최종 순위는 공동 5위에서 공동 6위로 떨어졌다. 공동 5위 상금은 75만 달러인데 공동 6위 상금은 50만 8750달러다. 24만 달러 이상을 손해본 것이다. 반면 공동 5위였던 윤 람(스페인)은 단독 5위가 되면서 상금 80만 달러를 챙겼다. 메론크의 벌타 덕분에 5만 달러 늘어난 상금을 받은 것이다.

LIV 골프는 역동적인 경기 운영과 분위기를 지향한다. 그래서 능장 플레이에 특히 엄격하다. 지난해 스페인 대회 때 리처드 블랜드(잉글랜드)에게도 능장 플레이에 따른 벌타를 부과했다. DP월드 투어에서 올해 LIV에 합류한 메론크는 LIV 출범 이후 능장 플레이로 벌타를 받은 두 번째 선수가 됐다.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